

내고장 일꾼



허석 순천시장은 17일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6회 순천만 세계 동물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한다.



방목길 광양부시장은 17일 오전 10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새마을지도자전남도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한다.



김선호 곡성부군수는 17일 오후 2시 군청소통마루실에서 열리는 일일업무 보고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한다.

곡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주의

곡성군은 최근 경로당을 중심으로 물과 식품으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란 감염된 병원균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위장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름철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군은 꼭 기억해야 할 6대 예방수칙 ▲올바른 손씻기 ▲익힌 음식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하지 않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을 준수할 것을 안내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각종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올바른 손씻기와 안전한 음식물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며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각종 감염병 예방에 가깝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곡성=한정길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 사 010-4601-5323
- 여 수 010-8648-1236
- 광 양 010-3622-9898
- 순 천 010-2547-7890
- 구 례 010-5431-4006
- 곡 성 010-6764-6100
- 고 흥 010-9151-2828
- 보 성 010-4633-1790

순천 흑두루미 ‘남북 평화 전도사’ 만들자

학계 교류 방향 세미나 ‘제14회 순천만 에코톡’ 개최 “서식지 보존 남북 함께 나서야”...공동복원 사업도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자연생태관에서 ‘순천 남북 생태교류 방향과 국제동향 모색’을 주제로 제14회 에코톡(eco-talk)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열린 순천만 에코톡에서는 남북 생태교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인철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분과위원장은 흑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해 남북이 함께 나설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의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나무를 심고 태양광 시설과 식량 증산을 위한 유기농 등을 지원

하는 ‘순천 프로젝트’를 제안한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흑두루미와 저어새 등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장비와 운송 기구를 지원하는 등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북이 공동으로 습지생태 보고서를 만들고 생태도감을 발간하는 등 공동 연구와 자료 공유도 중요하다”며 “북한과 교류하는 NGO 단체와 학자들을 지원해 국제적인 협력을 끌어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북한 람사르습지를 모니터링해 온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 터’ 대표도 “북한의 개발 압력이 가속하면 남한의

산림과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파괴와 갈등을 되풀이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해마다 10월 중순에 순천만을 찾아 오는 2천여마리의 흑두루미는 이곳에서 겨울을 난 뒤 이듬해 3월 말쯤 북쪽으로 이동한다.

북한에서는 갯두루미라 불리는데 청천강 하구에 있는 문덕 철새보호구에 중간 기착해 몸을 풀었다가 시베리아로 날아간다.

순천만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버려진 갯벌이었지만 행정당국과 시민의 노력으로 회생해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가 다시 찾았다.

순천시는 지난 4월 국제두루미재단과 협약을 하고 북한과 두루미 서식지 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자연생태관에서 제14회 에코톡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내년 5월에는 한반도 두루미류 보전 국제학술회의를 여는 등 북한과 함께 두루미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기영 순천만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 북측이 지난 5월에 170번째 람사르협

약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7월에는 순천시 전역과 북한 금강산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며 “남북 생태교류와 협력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진 만큼 시민 주도로 아이디어를 모아 교류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보성군은 최근 검백면주민센터에서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강1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보성강1지구 재해 위험 정비 사업 추진

2021년까지 검백면 일대 367억 투입

보성군은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인 검백면 도안리, 석호리, 평호리 일대에 367억 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보성강1지구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검백면 도안리, 석호리, 평호리는 보성강댐 하류부류 집중 호우 시 해년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자연 재해 취약 지역으로 보성강 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 불량에 상습 침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군은 최근 검백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과 설계용역을 맡은 ㈜삼안, 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설계용역 관계자는 사업장의 위치와 토목·건축·기계 등 공사 추진 계획, 추진 일정,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용지 보상 업무를 위탁 받은 농어촌공사에서는 용지보상대상 628필지 중 480필지(공유(135,408㎡)와 사유지148(39,522㎡) 필지의 분할 측량을 추진해 11월말까지 용지매수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성강1지구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은 하천 범람과 침수 예방을 위해 ▲지방 하천 정비(4.2km) ▲배수 펌프장 설치(3개소) ▲고지 배수로(0.9km)·기존 수

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해 상습 침수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조민근(63·검백면)씨는 “면소지가 현재 가장교보다 더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상정리 없이 하천둑을 높이고 가장교를 더 높이 신설하는 것은 인재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국가 예산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가 반드시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계용역을 맡은 (주)삼안측 관계자는 “기초자료 조사에 보성강댐 수문 개방으로 인한 재해 원인과 하상정리에 대한 조사까지 소상히 설계돼 있지만 이번 공사는 국토부 하천기본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근종 기자

여수교육청 공직자 청렴 교육

‘청탁 금지법’ 주제 강연

여수교육지원청은 최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직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2018 친절·공감·배려하는 공직자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청렴교육에 앞서 여름휴가철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적발 사례와 그에 따른 처벌 기준을 안내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이어 금곡서당 훈장 서상일 특별강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과 역사인물 속의 청렴’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서상일 강사는 청백리 선현들의 사

례를 특유의 입담으로 풀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김연식 교육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자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에 내재한 필수불가결한 가치라고 생각되는 청렴을 실현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의무라는 것을 명심하고 후손에게 우리 역시 청백리 선현이 되도록 항상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수교육지원청은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실현을 위해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와 청렴동아리활동, 청렴 봉사활동 등 다양한 청렴 윤리경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여수=곽재영 기자

광양 하반기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내달 6일부터 중마도서관서

광양시는 내달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중마도서관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에 ‘인문독서아카데미’ 하반기 과정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인문독서아카데미’는 시민 인문정신 고양과 지역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도서관과 문화원 등에서 시행하는 인문학 강연 사업이다.

하반기 강연은 ‘차와 맥주 인문학’을 주제로 총 7회에 걸쳐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내달 6일부터 시작되는 ‘차 인문학’에서는 4회에 걸쳐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전임연구원이며 ‘녹차탐미’ 저자

인 서은미 강사를 초청해 한·중·일의 여러 가지 차에 관한 이야기와 서양의 홍차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강연에서는 일상에서 가까이 접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맥주문화, 에일과 라거의 세계, 맥주 강대국·독일과 벨기에의 맥주 문화 등에 대한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인문독서아카데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wangya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8월 25일까지 시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061-797-2447)로 신청하면 된다. /광양=정경화 기자

클릭! 고향 소식



구례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구례 평화의 소녀상 건립 범국민추진위원회는 8·15광복절을 맞아 서시천 체육공원에서 ‘구례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막식에는 김순호 군수를 비롯한 150여명의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구례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생명·인권 유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성을 반성하자는 다짐의 상징물이다. /구례=김진석 기자



순천 덕연동 어린이 물놀이장 인기

순천시 덕연동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연향골 개구쟁이 워터파크’가 16일 간 2,500여명의 어린이들이 다녀가며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16일 밝혔다.

장 ‘연향골 개구쟁이 워터파크’는 덕연동행정복지센터와 주민들이 뜻을 모아 기획한 행사로 통장, 주민자치위원,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약 200명의 덕연동 직능단체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장흥 새마을부녀회원 영화관람

장흥군은 최근 새마을부녀회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영화보는 날을 운영했다.

이번 사업은 장흥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지사, 장흥군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업무협약을 맺고 시행한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새마을부녀회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행복하고 안전한 장흥 만들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화순교육청 맘-뜸 지원단 문화체험

전남도화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학생들의 보람된 방학활동에 도움이 되는 맘-뜸 지원단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체험은 문화탐방과 영화관람을 통해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 견문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화순 Wee센터는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기관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과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화순=서호령 기자